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3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1년 3월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컴퓨터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8.7% 증가함.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등은 부진하였으나 운수,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3.4%), 기계장비(14.3%), 자동차(11.6%)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영상·음향·통신(-7.3%), 컴퓨터(-5.9%), 인쇄 및 기록매체(-5.7%) 등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8.2%), 금융·보험(6.8%), 보건·사회복지(6.7%), 예술·스포츠·여가(5.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5.0%), 도매·소매(3.3%)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13.7%), 전문·과학·기술(-1.8%), 숙박·음식점(-1.3%), 교육(-1.0%) 등에서는 감소함.
- 2011년 3월 소비·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0.3% 증가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는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4.9%),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4.6%)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함.
 -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투자는 줄었으나 화물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는 건축공사(주거용), 발주자별로는 공공 및 민간부문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 발전·송전 등의 발주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 주택, 기계설치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보다 0.1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6%로 전월보다 0.8%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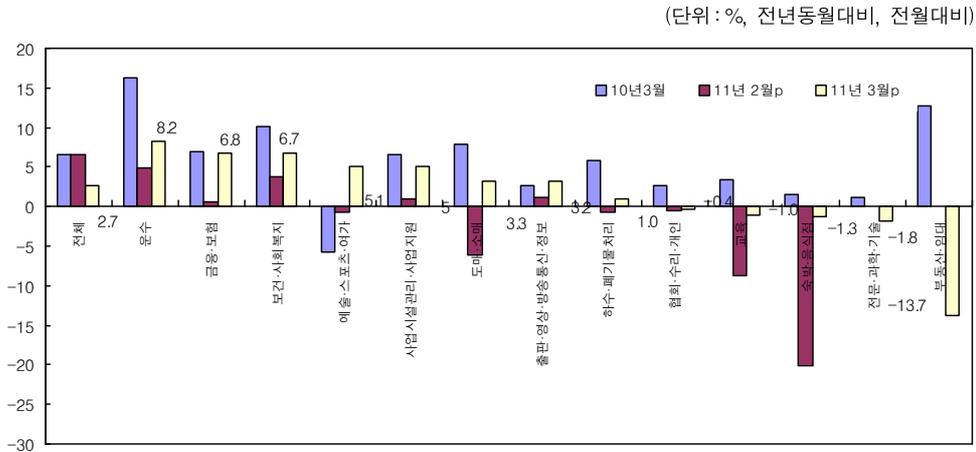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

- 2011년 1/4분기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0.5%, 2.5% 증가하였고, 소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19.5% 증가함.

◆ 2011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2% 상승(생활물가지수 4.1% 상승)

- 2011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나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하여 2011년 1월 4.1% 상승 이후 4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1%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부문, 기타 부문에서 각각 7.6%, 7.0%, 7.1% 상승함.
 - 2011년 4월 생활물가지수는 122.8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함.
 - 2011년 4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8% 하락, 전년동월대비 7.7% 상승함.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24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2천 명(1.5%)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736천 명으로 200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504천 명으로 182천 명(1.8%) 증가하였음.
- 2011년 4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3.6%)은 전년동월대비 0.2%p, 여성(50.2%)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4월 중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0.7%로 전년동월대비 0.4%p, 여성의 고용률은 48.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4월 중 취업자는 24,3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9천 명(1.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1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7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1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2천 명(1.5%) 증가하였음 (그림 4 참조).
- 2011년 4월 중 실업자는 9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0.3%) 증가하였고, 실업

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남성 실업자는 5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4.4%) 감소, 여성 실업자는 3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9.0%) 증가
- 실업률은 남성이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여성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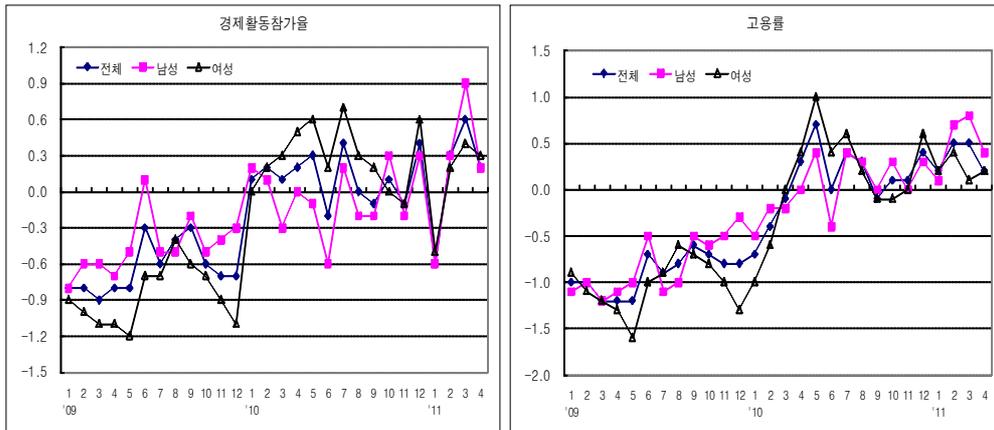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2010 | | | | 2011 | | | |
|---------|------------------|------------------|------------------|------------------|------------------|------------------|-----------------|------------------|------------------|
|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4월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3월 | 2/4분기 |
| 경제활동인구 | 24,448 (0.2) | 24,166 (1.5) | 25,038 (1.5) | 24,858 (1.6) | 24,993 (1.4) | 24,796 (1.4) | 24,488 (1.3) | 24,918 (2.2) | 25,240 (1.5) |
| 참 가 율 | 60.7 | 59.8 | 61.8 | 61.4 | 61.5 | 60.8 | 59.9 | 60.9 | 61.6 |
| 취 업 자 | 23,631 (0.0) | 23,037 (0.6) | 24,170 (1.8) | 23,924 (1.7) | 24,120 (1.6) | 23,989 (1.5) | 23,459 (1.8) | 23,846 (2.0) | 24,303 (1.6) |
| 고 용 률 | 58.7 | 57.0 | 59.6 | 59.1 | 59.3 | 58.9 | 57.4 | 58.3 | 59.3 |
| 실 업 자 | 817 | 1,130 | 868 | 934 | 873 | 808 | 1,028 | 1,073 | 936 |
| 실 업 률 | 3.3 | 4.7 | 3.5 | 3.8 | 3.5 | 3.3 | 3.9 | 4.3 | 3.7 |
| 비경제활동인구 | 15,829 (3.0) | 16,254 (1.0) | 15,493 (1.0) | 15,632 (0.7) | 15,656 (0.8) | 15,962 (0.3) | 16,392 (0.8) | 15,999 (-0.5) | 15,713 (0.5) |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5), 『2011년 4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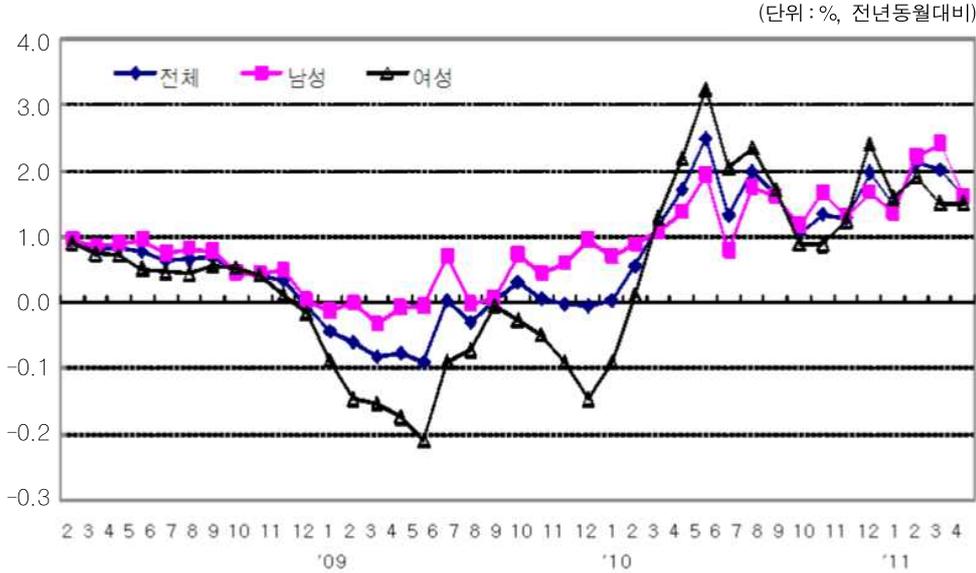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4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1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천 명(0.5%)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천 명(0.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천 명(0.5%)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 감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5천 명(13.8%) 증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93천 명으로 39천 명(-0.9%) 감소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16천 명, 2.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8천 명, 2.7%), 전기·운수·통신·금융업(76천 명, 2.7%), 농림어업(12천 명, 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천 명, 0.2%)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57천 명, -3.2%)에서는 감소
 - 2010년 이래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2010 | | | | 2011 | | | |
|-------------------|------------------|------------------|------------------|------------------|------------------|------------------|------------------|------------------|------------------|
|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4월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3월 | 2/4분기 |
| 전 산업 | 23,631 (0.0) | 23,037 (0.6) | 24,170 (1.8) | 23,924 (1.7) | 24,120 (1.6) | 23,989 (1.5) | 23,459 (1.8) | 23,846 (2.0) | 24,303 (1.6) |
| 농림어업 | 1,579 (-6.9) | 1,235 (-11.7) | 1,733 (-4.6) | 1,630 (-7.3) | 1,754 (-2.5) | 1,544 (-2.2) | 1,207 (-2.3) | 1,456 (5.1) | 1,642 (0.8) |
| 제조업 | 3,862 (-1.2) | 3,911 (1.6) | 4,015 (4.5) | 3,991 (3.8) | 4,053 (6.9) | 4,131 (7.0) | 4,139 (5.8) | 4,122 (5.1) | 4,108 (2.9) |
| 건설업 | 1,704 (-5.9) | 1,644 (-3.6) | 1,816 (2.5) | 1,792 (1.1) | 1,791 (5.4) | 1,761 (3.3) | 1,641 (-0.2) | 1,670 (-2.9) | 1,735 (-3.2)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5,511 (-2.6) | 5,532 (-1.0) | 5,461 (-1.3) | 5,434 (-1.7) | 5,443 (-1.2) | 5,442 (-1.3) | 5,471 (-1.1) | 5,452 (0.0) | 5,448 (0.2)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 8,149 (4.6) | 7,859 (3.2) | 8,294 (3.9) | 8,220 (4.7) | 8,244 (0.9) | 8,234 (1.0) | 8,097 (3.0) | 8,238 (2.4) | 8,438 (2.7) |
|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 2,802 (1.8) | 2,834 (4.1) | 2,831 (2.4) | 2,839 (3.5) | 2,816 (2.3) | 2,855 (1.9) | 2,880 (1.6) | 2,884 (1.9) | 2,916 (2.7) |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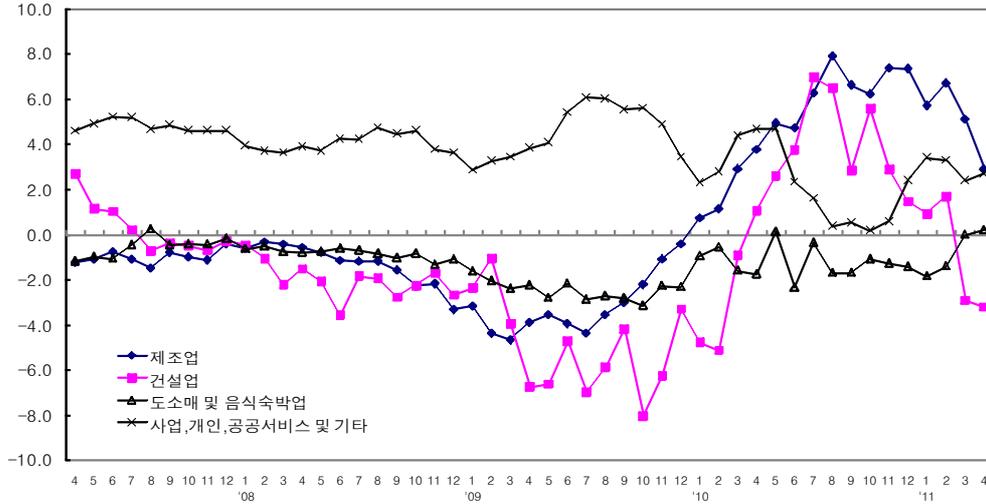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5), 「2011년 4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자영업자 감소 추세 지속 및 일용근로자 석 달만에 감소로 반전

- 2011년 4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0.2%)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3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4천 명(2.1%)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618천 명으로 607천 명(6.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28천 명으로 220천 명(-4.3%)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812천 명으로 24천 명(-1.3%)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개월간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던 일용근로자는 다시 감소로 전환(그림 6 좌측 참조).
 - 2010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자영업자는 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2011년 들어 무급가족종사자는 소폭 증가(그림 6 우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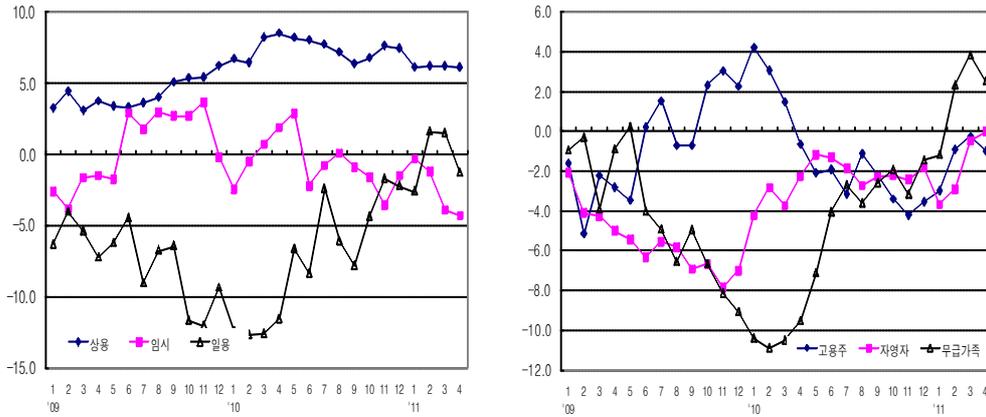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2010 | | | | | 2011 | | |
|---------|------------------|------------------|------------------|------------------|------------------|------------------|------------------|------------------|------------------|
|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4월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3월 | 2/4분기 |
| 전 체 | 23,631 (0.0) | 23,037 (0.6) | 24,170 (1.8) | 23,924 (1.7) | 24,120 (1.6) | 23,989 (1.5) | 23,459 (1.8) | 23,846 (2.0) | 24,303 (1.6) |
| 비임금근로자 | 6,952 (-5.3) | 6,638 (-3.5) | 7,023 (-2.6) | 6,930 (-3.3) | 6,994 (-2.4) | 6,778 (-2.5) | 6,542 (-1.5) | 6,781 (0.3) | 6,946 (0.2) |
| 자영업주 | 5,600 (-4.7) | 5,514 (-1.9) | 5,696 (-1.6) | 5,659 (-1.8) | 5,646 (-2.3) | 5,514 (-2.6) | 5,399 (-2.1) | 5,554 (-0.4) | 5,642 (-0.3) |
| 무급가족종사자 | 1,292 (-7.9) | 1,124 (-10.6) | 1,327 (-6.9) | 1,272 (-9.5) | 1,348 (-3.0) | 1,264 (-2.2) | 1,143 (1.7) | 1,227 (3.8) | 1,304 (2.5) |
| 임금근로자 | 16,678 (2.4) | 16,398 (2.3) | 17,148 (3.8) | 16,994 (3.9) | 17,126 (3.3) | 17,211 (3.2) | 16,917 (3.2) | 17,065 (2.7) | 17,357 (2.1) |
| 상용근로자 | 9,621 (5.7) | 9,808 (7.1) | 10,060 (8.2) | 10,011 (8.5) | 10,158 (7.1) | 10,320 (7.3) | 10,413 (6.2) | 10,543 (6.2) | 10,618 (6.1) |
| 임시근로자 | 5,167 (2.1) | 4,892 (-0.7) | 5,179 (0.8) | 5,147 (1.9) | 5,148 (-0.5) | 5,052 (-2.2) | 4,804 (-1.8) | 4,782 (-3.9) | 4,928 (-4.3) |
| 일용근로자 | 1,891 (-11.1) | 1,699 (-12.5) | 1,909 (-8.8) | 1,836 (-11.5) | 1,820 (-5.4) | 1,838 (-2.8) | 1,701 (0.1) | 1,740 (1.5) | 1,812 (-1.3) |
| 36시간 미만 | 2,961 (4.5) | 4,851 (56.9) | 3,197 (6.7) | 3,295 (10.3) | 3,329 (-1.8) | 3,090 (4.4) | 3,246 (-33.1) | 3,236 (-1.9) | 3,251 (-1.3) |
| 36시간 이상 | 20,404 (-0.7) | 17,671 (-8.7) | 20,705 (1.1) | 20,379 (0.4) | 20,362 (2.4) | 20,620 (1.1) | 19,739 (11.7) | 20,323 (2.6) | 20,775 (1.9) |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 5), 『2011년 4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4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1.3%)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775천 명으로 396천 명(1.9%) 증가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42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 (-10.1%)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졸 실업률 증가, 나머지 학력은 감소

- 2011년 4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19세(8.4%, -4.0%p), 50대(2.1%, -0.2%p), 40대(2.3%, -0.1%p)에서 감소
 - 20대(8.7%, 0.3%p), 60세 이상(2.4%, 0.2%p), 30대(3.9%, 0.1%p)는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고졸(4.3%, 0.2%p)에서는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2.2%, -0.3%p), 대졸 이상(3.9%, -0.2%p)에서는 감소하였음.
- 2011년 4월 중 전체 실업자 936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90천 명으로 2천 명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2010 | | | | | 2011 | | | |
|-----------|----------|------------|----------|----------|----------|----------|------------|------------|----------|--|
|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 |
| | | | | 4월 | 3월 | | | 3월 | 4월 | |
| 전 체 | 817(3.3) | 1,130(4.7) | 868(3.5) | 934(3.8) | 873(3.5) | 808(3.3) | 1,028(4.2) | 1,073(4.3) | 936(3.7) | |
| 15~29세 | 320(7.6) | 408(9.5) | 332(7.7) | 366(8.6) | 323(7.6) | 297(7.1) | 372(8.8) | 397(9.5) | 366(8.7) | |
| 30~39세 | 202(3.3) | 234(3.9) | 217(3.6) | 232(3.8) | 213(3.5) | 194(3.2) | 237(4.0) | 247(4.1) | 237(3.9) | |
| 40~49세 | 151(2.3) | 192(2.9) | 154(2.3) | 160(2.4) | 165(2.5) | 151(2.2) | 167(2.5) | 176(2.6) | 154(2.3) | |
| 50~59세 | 104(2.2) | 150(3.2) | 105(2.1) | 112(2.3) | 113(2.3) | 114(2.3) | 133(2.7) | 142(2.8) | 108(2.1) | |
| 60세 이상 | 41(1.5) | 146(5.8) | 61(2.1) | 64(2.2) | 59(2.0) | 53(1.9) | 119(4.5) | 110(3.9) | 71(2.4) | |
| 중졸 이하 | 119(2.3) | 241(5.1) | 131(2.5) | 130(2.5) | 131(2.5) | 112(2.2) | 195(4.1) | 174(3.5) | 114(2.2) | |
| 고졸 | 393(4.0) | 493(5.0) | 386(3.8) | 408(4.1) | 408(4.0) | 392(3.9) | 465(4.6) | 480(4.8) | 436(4.3) | |
| 대졸 이상 | 306(3.2) | 396(4.2) | 352(3.6) | 395(4.1) | 334(3.5) | 304(3.1) | 369(3.8) | 419(4.2) | 387(3.9) | |
| 취업무경험 실업자 | 36 | 57 | 46 | 46 | 35 | 38 | 52 | 56 | 47 | |
| 취업유경험 실업자 | 781 | 1,072 | 822 | 888 | 838 | 770 | 977 | 1,016 | 890 | |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1. 5), 『2011년 4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1년 1/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1년 1/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5.3%), 사업소득(2.4%), 이전소득(3.3%)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5% 증가(실질로는 0.9% 감소)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고용확대 등에 기인한 근로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4.5%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은 14.0% 감소
 - 소비지출은 보건(10.95), 교통(11.5%), 의류·신발(9.3%)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3%로 증가(실질로는 0.7% 증가)
 - 비소비지출의 경우, 소득증가, 고용확대에 따른 경상조세, 연금 및 사회보험 등에

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1% 증가
 -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

〈표 6〉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 | 2010 | | | | 2011 | |
|--------|---------|-------|---------|-------|---------|-------|
| | 1/4분기 | | 4/4분기 | | 1/4분기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소 득 | 3,728.0 | 7.4 | 3,620.4 | 2.4 | 3,857.6 | 3.5 |
| 경상소득 | 3,516.6 | 7.2 | 3,498.7 | 3.2 | 3,675.8 | 4.5 |
| 근로소득 | 2,360.1 | 5.0 | 2,351.5 | 2.7 | 2,486.2 | 5.3 |
| 사업소득 | 793.1 | 12.4 | 818.0 | 2.5 | 812.5 | 2.4 |
| 재산소득 | 16.4 | -16.2 | 15.4 | 34.6 | 18.6 | 13.7 |
| 이전소득 | 347.0 | 13.0 | 313.8 | 8.3 | 358.5 | 3.3 |
| 비경상소득 | 211.3 | 10.3 | 121.6 | -17.2 | 181.8 | -14.0 |
| 소비지출 | 2,338.4 | 9.5 | 2,308.4 | 4.2 | 2,439.4 | 4.3 |
| 처분가능소득 | 3,033.6 | 7.4 | 2,966.4 | 2.6 | 3,121.1 | 2.9 |
| 흑자액 | 695.1 | 0.9 | 658.0 | -2.5 | 681.7 | -1.9 |
| 흑자율 | 22.9 | -1.5p | 22.2 | -1.2p | 21.8 | -1.1p |
| 평균소비성향 | 77.1 | 1.5p | 77.8 | 1.2p | 78.2 | 1.1p |

주 :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 통계청(2011. 5), 『2011년 1/4분기 가계동향』.

〈표 7〉 2011년 1/4분기 소득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 | I분위 | | II분위 | | III분위 | | IV분위 | | V분위 | |
|--------|---------|--------|---------|--------|---------|--------|---------|--------|---------|--------|
| | 금액 | 증감률(차) |
| 가구원수 | 2.56명 | | 3.21명 | | 3.38명 | | 3.59명 | | 3.66명 | |
| 가구주연령 | 57.0세 | | 47.8세 | | 46.0세 | | 45.3세 | | 46.5세 | |
| 소 득 | 1,106.3 | 2.4 | 2,409.6 | 6.4 | 3,370.9 | 4.6 | 4,568.3 | 4.0 | 7,831.3 | 2.1 |
| 경상소득 | 1,034.8 | 3.1 | 2,327.3 | 6.3 | 3,265.6 | 4.8 | 4,434.7 | 4.5 | 7,315.0 | 4.1 |
| 근로소득 | 461.7 | -1.3 | 1,389.1 | 9.8 | 2,095.6 | 6.2 | 3,050.4 | 5.6 | 5,432.7 | 4.4 |
| 비경상소득 | 71.5 | -6.2 | 82.3 | 7.8 | 105.3 | -1.8 | 133.6 | -12.1 | 516.3 | -19.9 |
| 소 비 | 1,486.2 | 7.4 | 2,382.6 | 10.7 | 2,934.7 | 4.6 | 3,692.0 | 4.7 | 5,383.1 | 1.7 |
| 처분가능소득 | 866.3 | 0.3 | 1,981.8 | 5.9 | 2,761.3 | 3.9 | 3,709.9 | 3.5 | 6,284.5 | 1.5 |
| 흑자액 | -380.0 | -25.5 | 27.0 | -76.2 | 436.1 | 4.3 | 876.3 | 1.0 | 2,448.1 | 2.9 |
| 흑자율 | -43.9 | -8.8p | 1.4 | -4.7p | 15.8 | 0.1p | 23.6 | -0.6p | 39.0 | 0.6p |
| 평균소비성향 | 143.9 | 8.8p | 98.6 | 4.7p | 84.2 | -0.1p | 76.4 | 0.6p | 61.0 | -0.6p |

- 2011년 1/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1분위(2.4%)와 5분위(2.1%) 증가폭은 2~4분위의 증가폭(4.0~6.4%)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1분위는 이전소득(13.2%)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근로소득(4.4%) 및 사업소득(7.1%)을 중심으로 증가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22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5월 18일 기준)는 130,822일로 집계됨.

〈표 8〉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 | 2011. 1. 1~2011. 5. 22 | 전년동기 | 증 감(%) |
|-----------|------------------------|---------|-------------|
| 노사분규 발생건수 | 13 | 13 | - |
| 종 결 | 8 | 11 | - |
| 진 행 | 5(7) | 2(3) | ()는 전년도 이월 |
| 근로손실일수 | 130,822 | 108,324 | 26.8 |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5월 18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한진중공업

- 노조는 지난 12월 20일부터 전면파업을, 사측은 올해 2월 14일부터 직장폐쇄를 지속하며 대처중임. 지역내 이슈화, 정치권내 지원사격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비해고대상자의 교육연수 등 파업 대오는 일부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노조는

해고자, 비해고자에 대한 계층별 토론회 등 조직화를 꾀하고 있음. 한편 사측도 직장폐쇄 이후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조짐을 보여주지 않은 채 노사는 모두 대치상황을 지속하고 있음. 다만 지난 5월 11일, 금속노조 부양지회장, 한진중공업 지회장 2명이 17호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으나 1명은 잔류한 상태임. 고농성 해제이유 중 하나는 본교섭 요구를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짐.

- 5월 중순경, 노사 대표는 면담을 실시. 사측은 정리해고 철회는 불가하고 파업철회 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53억여원) 취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전북지역시내버스노조

- 지난 4월 26일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노사는 잠정합의에 이룸. 5월 2일 업무복귀를 실시함. 다만 전북고속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규가 지속되고 있음. 4월 30일경, 노조 지회는 파업투쟁 지속(1안), 업무복귀후 현장투쟁(2안)으로 총회를 실시하였고, 1안으로 가결됨.
- 전북고속이 운수노조(민주노총)와 전북자동차노조(한국노총)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함. 그러나 운수노조가 다시 5월 14일에 요구한 단체교섭도 거부. 사측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교섭에 응하겠다고 함. 노조는 이미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을 한 상태이고 이에 사측은 이의제기를 한 상황임.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지회 :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5월에 들어서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사는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5월 11일경, 사측(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13개사)는 지난해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위를 개최하여 총 304명에 대해 징계를 실시. 이미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은 5월에 들어서까지 총 744명을 징계했음.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도 총 260명을 징계함.
- 전주지회는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의 징계에 반발하며 5월 10일부터 잔업(평일) 및 특근(토요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약 300여명이 농성에 참가하고 있음. 이렇게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파업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것이나 지난 파업 이후로 사측의 강경한 대응에는 향후 노조의 정규직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임.

■ 대우자동차판매

- 올 1월 31일자로 정리해고된 10여명은 현재까지 점거농성 계속중임(해고자는 229명).
- 농성 대오가 3월까지 이탈하면서 농성 조합원이 줄어들어 1주일에 3교대로 농성

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임.

- 지난 3월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노, 부해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나, 크게 상황이 진전되거나 대화의 통로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총 178명이 부노, 부해 구제신청을 함).

■ 에스지신용정보

- 4월부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을 중단, 재개를 반복하며 채권추심원의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사측과 대립이 1개월째를 넘고 있음.
- 다만 노조는 간헐적인 파업을 선택하여 파업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 한편 5월 중순경에는 실무교섭과 대표교섭도 예정되어 있음. 노조의 주요한 요구는 채권추심원 140여명의 호봉제 도입, 타임오프 3천시간 보장(풀타임 1명, 파트타임 5명) 등임.

■ 발레오공조코리아

- 사측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전면 생산 중단.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청산업무 담당자를 제외하고 임직원 179명에 대해 퇴사처리함. 지난 2010년 2월, 공장 설비는 성우철강에 매각함. 2010년 10월 14일 폐업신고
- 그간의 과정에서 노조는 발레오공조코리아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규정. 작년에는 특별위로금 신청기간을 2차례 두었으나, 올해 4월 조합원 72명을 대상으로 특별위로금(1인당 2,940만 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자는 없었음.
- 한편, 노조는 지난 1월부터 퇴직자에게 20만 유로(약 3억 원)의 위로금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동시에 향후 10년내 한국내 콤프레서 미생산 및 현 공장 위치에서 사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과 이를 위반할시 조합원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요구안도 아울러 제시함.

* 노조 요구안: ① 향후 10년내 한국내 콤프레서 미생산 및 현 공장위치에서 사업하지 않을 것 약속, ② ①항 위반시 조합원들에게 각 10만 유로의 위약금 지급 및 '09.10월 기준 노동조건과 노동조합·단협 등을 유지·승계하여 재고용, ③ 조합원이 재취업 희망시 합의를 1개월 이내에 한국내 발레오그룹 사업장에 재취업, ④ 재취업 불원 퇴직자에게는 각 20만 유로 지급 ⑤ 회사·노조·조합원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

- 현재까지 노사간 입장변화는 없는 상황임. 간헐적으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으나 입장차이가 없이 공전되고 있음. 한편 노조는 위장폐업 철회 및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 10월부터 프랑스 대사관 앞 노숙투쟁사내 천막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5차례 해외 원정투쟁을 다녀온 상황임.

○ 주요 분류사업장 등

■ 현대자동차

- 지난 5월 초, 사측의 인력충원 방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음. 사측은 노조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실무협의 과정에서 사측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해명. 올해 1월에 2010년 4/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공장의 정규직 신규인원 충원에 대한 사항을 2011년 상반기에 확정하기로 한 바 있음.
- 한편 5월 11일,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속개. 4월 21일에 휴회되었던 회의를 시작하면서 속개 7일차인 5월 13일에 이르러 2011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함. 임단협 교섭 상견례는 6월 초로 예상하고 있음.

【임단협 요구안 주요 내용】
 ▲기본급 150,611원 인상
 ▲상여금 현 750% → 800%(50% 인상)
 ▲성과급: '10년 순이익의 30%(15,800억 원)를 조합원 및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
 ▲정년연장(58세 → 60세<단, 정년후 촉탁 1년 연장 가능>)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현행 대리급까지 → 과·부장급까지)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우대¹⁾

■ MBC

- 올해 1월부터 MBC 사측은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를 한 이후 PD들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노사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음. 특히 5월에 들어서는 라디오 PD와 노조 간부 등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인 김미화씨의 하차와 관련하여 부당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농성중임.
- 노조는 지난 5월 9일, 라디오 본부의 개편에 따른 문제를 두고 밀실개편, 시사교양국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바 있음.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인사 퇴진(라디오본부 관련), 기자와 PD들의 제작 자율성 보장, 예능국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방안 제시 등이 주된 내용임.
- 더구나 PD수첩 이우환·한학수 PD를 각 용인드라마미아와 경인지사로 발령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지난 5월 16일에는 여의도 MBC 정문 앞에서 ‘PD수첩 파괴, 국민의 알권리 탄압하는 MBC 김재철 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1) 이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쏟아져 나온 바 있으나, 현대차노조는 “무조건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근무한 조합원의 공로를 감안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개념”이라며 해명한 바 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노사는 정년연장, 성과상여금, 타임오프 등과 관련하여 교섭의 진전이 없자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조정중지 결정 이후 노조는 파업에 돌입함. 노사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정년 60세로 연장(현행 58세) <수용불가(단, 60세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은 가능)>
 ▲성과상여금: 80% 고정, 20% 차등 지급(현행) <고정·차등 각 50%로 변경>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업무 등 제한 없이 인정 <법령상의 범위에 한정>
 ※ 근로시간면제한도 4,000시간(고시 한도)에는 이견 없음
 ▲시설관리원 교육지원비 15,000원 인상 <수용불가>
 ▲조합활동 현행 유지 <개정 노조법에 맞게 조정>

- 5월 2일, 노조는 파업출정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사측은 노조에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단협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보함. 5월 3일부터 노조는 파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파업참가인원은 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2)
- 5월 중순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이견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는 큰 상태임. 노조는 교과부 등에서 농성, 시위를 폭넓게 전개하려고 하고 있음.

■ 외환은행

- 노조는 지난 4월부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반대 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중에 있음. 5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최종판단을 유보한 바 있음. 이에 5월 중순 이후 투쟁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변화된 조짐이 큼.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노조

- 5월 11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운수노조 아시아나지부 등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단협 위반, 불법행위 규탄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 철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주된 이슈는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단체협약 위반 등이 그 내용임.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350여명을 고용해 왔다고 함. 더구나 검찰은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나 국내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아시아나항공도 ‘기본적인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등 단협을 위반’한

2) 4월, 노조는 정년연장, 성과상여금 차등폭 현행유지 등을 요구하며 평일 연장근로 및 토요일 순환근무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을 벌인 바 있음.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반발함.

■ 한국철도공사

- 5월, 노조는 해고자 구제기금을 위해 조합비 인상(기본급 1.6% → 2.0%)을 위한 찬반투표에서 73.4%의 찬성으로 가결. 4월 말 현재 해고자는 162명으로 희생자 구제기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내린 결정이라고 알려짐.
- 최근 철도 노사의 핵심 현안은 철도 안전문제임. 지난 5월 9일 철도 노사는 긴급 협의를 통해 직무역량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5월 10일~14일까지). 철도 안전과 관련하여 사측이 직무역량 평가시험을 치루기로 하면서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음. 결국 무기명으로 직무평가를 치르기로 하였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간 합의함.
- 그러나 노조는 최근 빈발하는 열차사고가 개인 부주의나 실수에서 찾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동시에 그간 철도공사가 거부해 왔던 철도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교섭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의제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함.

■ 서울지하철노조

- 노조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민주노총 탈퇴 및 국민노총 설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음. 투표결과는 53.0%로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됨(재적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 투표). 그러나 이 투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노동부는 유권해석상 상급단체 탈퇴에 대해서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족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³⁾
-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탈퇴 그 자체에 무게감이 있기도 하지만 제3노총 설립이라는 부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서울지하철노조는 “노동운동이 상층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 이념투쟁과 귀족노동운동에 매몰되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노동운동이 간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조합원·노동자·국민을 섬기며 상생과 협력을 주도하는 선진 노동운동을

3)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규약 제5조에는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약 제53조에 명시되어 있음. 이는 노조법에서도 동일한 요건을 요구함.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부 유권해석이 지난 2003년에는 “규약에 명기된 연합단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규약변경을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법적으로 이 문제가 비화될 경우, 서울지하철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펼쳐나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의 탈퇴 이유와 동시에 5월 중 ‘새희망 노동연대회의’를 통해 국민노총 설립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6월 중 설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효성 언양공장

- (주)효성 언양공장은 한국노총 사업장임(섬유유통연맹). 최근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조인 화섬노조에 일부 조합원들이 가입하면서 사실상 복수노조가 되었음.
- 총 조합원은 330명이나 현재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5월 4일, 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음.
- 사측은 현재 복수노조가 시행되지 않아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복수노조 시행일이 7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가 주목됨. 효성 언양공장은 지난 2001년 파업 이후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유성기업

-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임. 현재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며 조합원수는 560여명. 아산공장, 영동공장(충북), 남동공장(인천), 대구공장(경북) 등 4개 공장에 4개의 노조 지회를 두고 있음.
- 노조 지회는 5월 18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임. 이에 아산공장 측은 5월 18일 20:00부로 직장폐쇄를 단행
- 지난 2010년 1월,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합의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노사간 합의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었음. 올 1월부터 교대제와 관련한 11차례 특별교섭을 실시했으나 의견접근에는 실패함.

【노<사> 주요 쟁점】

-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현행 주야2교대제)
<생산량 확보에 대한 충분한 논의후 도입 결정>
-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전제로 월급제 도입(현행 시급제)
<생산량 확보에 대한 충분한 논의후 결정>

- 5월 3일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5월 13일에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서 5월 18일 오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74.6% 찬성). 이에 노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직장점거, 물리적 충돌 발생
- 노조는 천안고용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사측의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함.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직장점거를 풀고 관리자 조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 결국 노

조는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장 내 점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4)

- 5월 24일에는 점거중인 조합원 520여명에 대해 공권력 투입. 경찰력 30개 중대(3천명)이 조합원 전원 연행. 평조합원은 석방됨. 그러나 노조간부 및 적극가담자 187명은 경찰 조사. 한편, 5월 26일 금속노조는 오후 4시간 동안 충남지부와 충북지부 소속 30여개 사업장에서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함.

◆ 노동계 동향

○ 양대 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입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 4월 29일, 양대 노총과 야3당(민주당·민노당·국민참여당)은 국회정론관에서 ‘노조법 재개정 공동입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에 관한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아울러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보완 등에 대해서도 개정의지를 가지고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할 것을 밝힘.5)

○ 양대노총, 5·1노동절 집회 개최

- 5월 1일, 한국노총은 ‘노동운동 탄압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반노동자 정권 심판! 한국노총 5.1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 이날 노동절 집회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노조법의 전면적 개정, 특히 타임오프의 폐기 및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복수노조 관련법도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4.27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독선적 정국운영을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천명함.
-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개최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날 집회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 집회가 예정대로 개최됨.

4) 5월 22일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자동차산업과 국가 경제에 파급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고 나서 파업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5) 한편 민주노총은 5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 및 공동투쟁 계획 발표’한 바 있음. 주요한 내용으로는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 투쟁사업장 현안의 해결, 법제도 개선 요구 등임. 특히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에 있어 불법파견,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직의 기본권 보장과 동시에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법제도에 있어서도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함.

- 민주노총은 물가폭등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민생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는 것과 개악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함. 행사 이후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이후 특별한 충돌없이 자진해산함.

○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저임금 노동환경 실태와 가계부 조사결과’ 발표

- 지난 12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저임금 노동환경 실태와 가계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3~4월 인천지역 저임금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의심비율이 16.6%에 달했고, 저임금노동자 가계는 월 13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임.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뒷받침해 주는 조사결과라며 사회적 제도 보완을 필요하다고 역설함.

◆ 경영계 동향

○ 경제5단체⑥, 양대 노총의 5.1 집회 등 노조법 재개정 투쟁 관련 입장 발표

- 경제5단체는 지난 5월 1일, 양대 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대해 ‘노사 합의에 기초해 만들어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일부 야당과 양 노총이 연대해 노조법 재개정을 시도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표명함.
- 이 같은 성명은 이미 두 번째로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경제5단체들은 성명에서 양대 노총의 노조법 개정 투쟁은 명분 없는 정치투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노조법 재개정 주장에 대한 동조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피력하였음. 또한 정부도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명에서 밝힘.

◆ 정부, 국회 동향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율 발표

-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률이 87%를 넘어섰다고 발

6)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림 7]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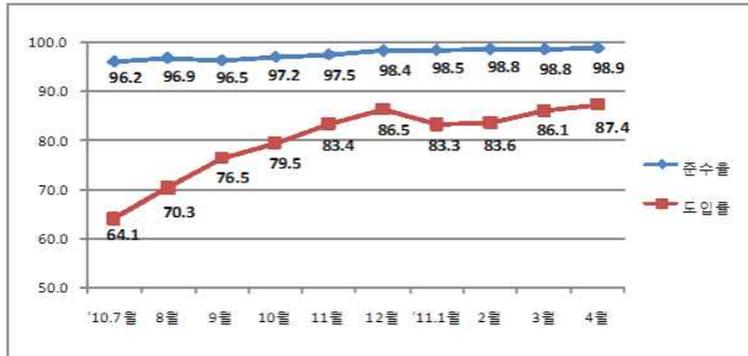


표. 현재까지 도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법 위반 사업장 15개소를 사법처리하였고, 그 중 만도, 두원정공 등 6개 사업장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함. 그 결과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2,162개소(98.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3개소(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7)

○ 고용노동부,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격차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10년 6월 기준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인적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 분석한 결과,8)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6%,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7.4%로 전년에 비해 각각 3.1%p, 3.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단위: %)

| | 시간당 임금총액 | | | | 시간당 정액급여 | | | |
|-----|----------|------|------|------------|----------|------|------|------------|
| | 2008 | 2009 | 2010 | 전년대비 차이 | 2008 | 2009 | 2010 | 전년대비 차이 |
| 전 체 | 12.9 | 15.7 | 12.6 | -3.1 | 6.7 | 10.6 | 7.4 | -3.2 |

7) 최근 주요 사업장 타임오프 도입 사례: 한국철도공사('10.11.15): 64명 → 면제자 16.5명/무급전임자 14명, 대한적십자사('10.12.14): 22명 → 면제자 5명/무급전임자 4명, 한국가스공사('10.12.24): 10명 → 면제자 5명/무급전임자 3명, 서울대병원('10.11.15): 8명 → 면제자 5명, SLS조선('10.11.18): 5명 → 면제자 3명 등임.

8) 인적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력, 직종 등

-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24.6%, 100~299인 사업체는 24.7%, 100인 미만 사업체는 8.0%로 2009년에 비해 각각 5.8%p, 1.6%p,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2010년 들어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함.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